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8월
석사학위 논문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 인식 비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혜지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 인식 비교

A comparison of perception between babyboomers
and millenials on preparation for old age

2019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혜지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 인식 비교

지도 교수

이 영 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김 혜 지

김혜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민창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성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영선 (인)

2019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노후준비	5
1. 노후준비의 개념	5
2. 노후준비의 분류	7
3. 선행연구	10
제2절 세대의 특성	11
1. 베이비붐세대	11
2. 밀레니얼세대	13
제3절 Q방법론을 적용한 인식연구	16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연구	16
2. 집단 간 인식 비교 연구	16

제3장 연구방법	18
제1절 Q방법론의 개념	18
제2절 연구 설계	20
1. Q표본 선정	20
2. P표본 선정	24
3. Q분류	27
4. 자료의 처리	28
제4장 연구결과	29
제1절 노후준비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의 인식 유형 및 결과 분석	29
1. 유형분석	29
2. 결과분석	31
제2절 노후준비에 대한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유형 및 결과 분석	44
1. 유형분석	44
2. 결과분석	47
제3절 노후준비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비교	60

제5장 결론 및 논의	62
제1절 결론	62
제2절 유형별 논의	67
1. 베이비붐세대의 유형별 논의	67
2. 밀레니얼세대의 유형별 논의	69
제3절 한계점 및 제언	72
[참고문헌]	73
[부록]	84

표 목 차

<표 2-1> Q방법론을 적용한 노후준비 인식 연구	16
<표 2-2> Q방법론을 활용할 인식 비교 선행 연구	17
<표 3-1> R과 Q방법론의 비교	18
<표 3-2> Q방법론 절차	19
<표 3-3> Q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 유형	20
<표 3-4>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른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의 면접 질문.....	21
<표 3-5> Q모집단의 구성	22
<표 3-6> Q진술문	22
<표 3-7> P표본의 특성 - 베이비붐세대	24
<표 3-8> P표본의 특성 - 밀레니얼세대	26
<표 4-1> 유형별 P표본(베이비붐세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표 4-2> P표본(베이비붐세대)의 아이겐 값과 변량	30
<표 4-3> 요인 간의 상관관계	31
<표 4-4>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33
<표 4-5> 제 1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34
<표 4-6>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35
<표 4-7> 제 2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36
<표 4-8>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37
<표 4-9> 제 3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38
<표 4-10>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39
<표 4-11> 제 4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40
<표 4-12> 제 5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42
<표 4-13> 제 5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42
<표 4-14> 베이비붐세대의 공통 진술문(±1.00이상)	43
<표 4-15> P표본(밀레니얼세대)의 아이겐 값과 변량	44
<표 4-16> 유형별 P표본(밀레니얼세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5
<표 4-17> 요인 간의 상관관계	46
<표 4-18>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48
<표 4-19> 제 1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49

<표 4-20>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50
 <표 4-21> 제 2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51
 <표 4-22>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53
 <표 4-23> 제 3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54
 <표 4-24>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56
 <표 4-25> 제 4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56
 <표 4-26> 제 5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58
 <표 4-27> 제 5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59
 <표 4-28>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비교 ……60

그림 목 차

[그림 3-1] Q분류의 강제분포28

ABSTRACT

A comparison of subjective perception between baby boomers and millenials on preparation for old age

Kim Hye-Ji

Advisor : Prof. Rhee Young-sun,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Modern society is rapidly aging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and elderly population increas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science,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living environment, and the improvement of diet. The aging of this society poses a variety of problems. First, while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the retirement age is being pulled forward, extending the post-retirement period. Second, elderly care costs are increasing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to support is increasing while the number of productive people is decreasing. Third, the generational conflict is intensifyi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The generational conflict is worsening the conflict over the pension system, jobs and stimulus values, and is even called a generational war. This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also affect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the interest in generational conflict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no longer limited to the elderly but is a problem for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e country's guarantee rate for old age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and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is not recorded. Nevertheless, comparative study of age-to-generation awareness is very limited,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retirement arrangements between baby boomers and millennial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ion and the type of detail that follows amid escalating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re looking at the Q methodologie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ost-retirement preparation and the perception of Millennial Generation, which is their children's generation, which is a generation that is about to retire or start a new environment. This will be used as a basis for preparing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among generations, designing future welfare policies for the future at the national level, and implementing policies that meet the needs of each generation.

This study used the Q methodology to conduct surveys and interviews with baby boomers and millennials on the topic of 'What do I think is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procedures of Q methodology are performed in the order in which Q sample is selected → P sample selection → Q class → Q data analysis → Q data analysis is analyzed. For the selection of Q samples, 133 statements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and 60 populations were extracted after excluding duplicates from the collected Q population. The five topics were then categorized into economy, health, emotion, society, policy and others, and the advice of two experts with research experience was extracted from 42 statements that were selected by all three of them, including researchers, to be confirmed in a total of 42 statements. In selecting the P sample, the interviewee did not include those who conducted the interview at the in-depth interview, but the sample was extracted by considering age, occupation, religion, family members, monthly income, whether they were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whether they joined the national pension. Then, 37 baby boomers and 33 millennials were selec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small sample. The Q classification took approximately 60 minutes and the Q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on the nine-point scale using the forced allocation method. After classifying Q, the data that conducted the Q classification were coded and analyzed using the PQ Method program,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types of baby boomers and millennials were derived into five different typ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tors for recognis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differed somewhat depending on each type.

According to the study, the type of perception of the baby boomers' preparation for retirement is five, and the Type 1 is 'unnecessary integrated preparation', Type 2 is 'stable preparation based on pension', Type 3 is 'income creation based on social participation', Type 4 is 'family, new, government, community share' and Type 5 is 'great support based on bookkeeping'. The recognition pattern for the millennial generation's preparation for retirement has also been identified as five types: Type 1 'sharp integrated preparation', Type 2 'YOLO life practice', Type 3 'sound preparation for each role', Type 4 'unconditional provision of retirement funds' and Type 5 'abnormal ideal'.

There are five major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baby boomers and millennials on the basis of typificati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blindness of post-retirement preparations,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birth and marriage values,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timulus values,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unding for old age and the need for post-retirement arrange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we examin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and millennials'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discussed ways to address generational conflicts and future welfare design through discussion of each type and comparison of perceptions between generations.

Key words : Qmethod, Babybommer, Millennials, Preparation for old age, Subjective Percep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2018년에 14.3%, 2019년에 14.9%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8). 이처럼 의학기술 및 과학의 발달, 주거 환경 발달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 단계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된다(류재홍, 2017).

이처럼 고령화는 단순한 노인 인구 증가가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김미혜·신경림, 2005) 사회가 부담해야 할 부양 부담을 고려할 때 노인 문제와 노년기를 위한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8년 79.6세에서 2012년 80.9세, 그리고 2017년 82.7세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8).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반면에 퇴직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어 은퇴 이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삶에서의 소득, 건강 관리, 취미 및 여가생활의 문제가 노년층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준비가 이슈화되고 있다(신수민, 2013).

특히 노인 부양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커짐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남기민·최화강, 2009), 실제로 노년부양비¹⁾의 경우 2000년에는 10.1명, 2015년에는 17.9명, 2030년에는 38.6명, 2050년에는 71.0명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6). 노인부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가적 산물로 가치관의 변화와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되고 있다. ‘세대갈등’은 과거보다 중요한 사회갈등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어 “세대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의 세대갈등이라 함은 흔히 사고방식에 따른 세대 간 문화차이에 있었다면 현재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 사이를 증형하며 나타나고 있다(주수정 외, 2017).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이다. 이는 즉,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통계청, 2019).

2017년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의 응답이 2016년 56.5%에서 2017년 62.4%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에 따르면 청·장년층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한 노인은 44.3%로 나타났으며, 노인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청·장년층은 80.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과 청·장년층 모두 세대 간 고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하여 노인층과 청·장년층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간 갈등 조장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는 것은 첫째, 연금제도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3%가 가장 중요한 노후대비책으로 국민 연금을 꼽고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노후준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세대 간 형평성의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즉, 세대 간 기여와 보상의 몫이 다른 탓에 해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청년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현재의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크며, 청년세대의 입장에서 현실은 비참하고 미래는 불안한데 자신들보다 더 풍요로운 기성 세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라고 하니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 예측 기사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반응마저 부추기고 있다. 이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한 탓에 국민연금에 대한 생산적 논의마저 어려운 실정이다(한귀영, 2018).

둘째, 연금을 둘러싼 세대 전쟁 뿐 아닌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전쟁도 부쩍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부터 비롯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젊은 세대가 차지해야 할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진입이 어려운 청년 세대와 일자리 퇴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갈등에 놓였다(박길성, 2011).

셋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다른 부양의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세대갈등이 형성되기도 한다(유희정, 2000; 남순현, 2004).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이 존경을 받아왔다. ‘효’ 사상에 근거한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문화로서 가장의 권위 아래 집 안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연장자에게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하지만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화는 부모부양에 있어 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의 사고를 변화시켰다.

기존 기성세대의 경우 그들의 부모세대의 노후를 책임졌으며 자녀들이 그들의 노후를 돌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를 책임지기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년을 준비치 못한 많은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부모부양에 관한 회피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노원석, 2011).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 및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노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김미혜·신경림, 2005). 하지만 세대갈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노후준비의 상황 또한 녹록치 않다. 2012년 우리나라의 노후보장률은 9.3%로 OECD국가의 평균 노후 보장률인 21.8%보다 훨씬 낮은 실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다(홍영준·이정훈, 2014). 하지만 노인의 경우 35.5%, 청·장년층은 14.2%, 29세 이하의 경우 26.4%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노후준비 수준마저도 낮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따라서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세대갈등이 야기되는 시점에 정부, 기업, 개인이 노후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노후준비 인식 비교 연구는 제한적이다. 노후준비 인식을 세대 간으로 나눠 살펴본 연구는 소수(김경아, 2014; 어홍실, 2016; 김연화·황종규, 2017; 류재홍, 2017)이다. 또한 노후준비란 주관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특성, 환경, 신념 등에 따라 개입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로 진행된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와 중년기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세대를 아우르는 질적 연구도 극소수이다. 세대 간의 노후준비 및 부양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로 나누어 비교해보고 그에 따른 세대 및 세 부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곧 은퇴를 앞두거나 새로운 환경을 시작해야 하는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세대의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세대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과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노후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각 세대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내가 생각하는 노후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가 가진 가치, 인식 등 주관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다. 즉, 두 세대의 인식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인식 유형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베이비붐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밀레니얼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후준비

노년기에는 생활패턴의 변화, 경제활동 감소, 신체 기능 퇴화로 인해 심리적 위축, 무기력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빈곤과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여 사회적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노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1. 노후준비의 개념

노후준비는 노후준비에 필요한 자원 마련과 성공적인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과정이자 계획으로(박창제, 2008)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전귀연·배문조, 2010; 최현자 외, 2012). 즉, 노후는 크게 두 가지 의미인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의 노후준비란 노후준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 사회로 변화선상에 있는 한국 사회의 노후준비는 노년기의 상실에 대한 대처를 전반적으로 내포하여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노후준비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궁극적인 노후준비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 차원에서 노년기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행위를 의미한다(최혜련, 2012). 따라서 노후준비란 노후의 삶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준비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단어들은 퇴직준비, 노후준비, 제 3기 인생, 생애설계 등이 있다(이소정 외, 200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퇴직준비

퇴직준비는 고용의 단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유급에서 무급상태로 전환됨에 따른 경제적 준비를 의미하며, 역할 수행 중단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이소정 외, 2008; 류재홍, 2017). 즉, 새로운 역할에 대한 대비를 뜻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퇴직 준비는 전자인 경제적 준비를 기본으로 통용되고 있다.

나. 노후준비

퇴직준비가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노후준비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화에서 파생되는 생물학적 변화까지 포함되는 의미이다(이소정 외, 2008; 류재홍, 2017).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면에서 보다 연속적인 개념이며,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와 관련된 소극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 제 3기 인생론

제 3기 인생론은 사회철학자 라슬렛(Laslett, P.)이 제기한 것이다. 라슬렛은 인생을 모두 4단계로 구분했다. 1기는 출생부터 학업을 마무리하는 시기, 2기는 취업을 시작으로 퇴직하는 시기, 3기는 퇴직 후 건강하게 지내는 시기, 4기는 건강이 쇠약해진 후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를 나타낸다. 이에 제 3기 인생은 아직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한 개념이긴 하나 국민의 1/3생애를 담보하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 3기 인생설계는 즉, 노후를 설계한다는 의미와 부합하다(이소정 외, 2008).

라. 생애설계

생애설계란 노후에 대한 준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관한 설계의 과정일 뿐이라고 한다(이소정 외, 2008; 류재홍, 2017). 즉, 특정한 시기에 대한 준비가 아닌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통합적 사고 속에 도출되는 개념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노후준비의 분류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 가능한 노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년기 삶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조기 은퇴가 급증하면서 중년층 또는 노년층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소득 준비의 취약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노후준비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여윤경, 2005; 박창제, 2008; 이승신, 2013; 이용재, 2013; 김지년, 2015). 그러나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대비하는 것으로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경제적 측면 이외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참여,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후준비가 강조되고 있다(홍영준·이정훈, 2014; 김영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이희자·김영미, 1996; 김윤정·최윤희, 2004; 배문조, 2009; 김주성·최수일, 2010)를 토대로 하여 노후준비의 범주를 경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노후준비 정책, 기타로 분류하였다.

가. 경제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란 재무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이다(Hodges, 2005). 즉,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필요 자원을 예측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성·최수일, 2010; 유인준, 2012).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경제적 궁핍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의료관리 부족, 영양섭취 미흡, 여가생활 불가능, 자존감 하락 등 다른 영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인수, 2002). 또한 생애주기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노년기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의료비, 생활비 등 지출은 계속 늘어난다.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노후에 경제력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심리·정서적 만족감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신은식, 2002)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준비는 노년기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로 보인다. 노인복지의 핵심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여윤경, 2005; 여윤경 외, 2007; 박창제,

2008; 이승신, 2012; 임종호·권미자, 2016; Moore&Mitchell, 1997). 이처럼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경제적 노후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는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평소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 했는지와 연결된다.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신체 및 기능의 저하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약화로 타인의 원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임경자, 2002; 정애리, 2007) 신체적 노후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한 연구(석상훈 외, 2012)에서는 노후준비에 있어 건강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Rowe&Kahn(1998)은 건강관리가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자 성공적 노화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보았다.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 사회, 심리, 정서적 측면 등에서 노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현식, 2012; 강성욱·하규수, 2013). 즉, 신체는 기력이 쇠퇴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회적 관계의 약화와 사회 활동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노후준비는 다양한 영역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유지연, 2016).

다. 정서·사회적 노후준비

정서·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는 정서적 유대의 상호작용 대상과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는 준비이자, 노년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원만한 사회관계망 유지와 긍정적인 생활태도로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혜련, 2012). 이는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Havighurst&Albrecht(1968)에 의하면 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

물학적 노화와 건강상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한다면 근본적으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중년기에 이루어 높은 과업이나 태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는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서·사회적 노후준비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자녀의 독립, 퇴직, 배우자 및 주변 사람들의 죽음 등 주로 역할 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상실은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를 축소시켜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노년기의 역할 상실은 노년기 삶의 질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전시기부터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직장동료 외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 실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역할상실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직장 동료 이외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취미 및 여가활동, 노인 교육 활동 등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박현식, 2012; 김재화·김욱, 2013; 신수민, 2013).

라. 노후준비 정책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유관기관에서는 노후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재무뿐 아니라 비재무(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확장하여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국민은 전체의 12.2%에 그치며,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은 1.6%에 불과하여 인식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정경희 외, 2016).

국민연금공단 이외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이와 같은 개별 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이용자에 제한이 있다는 가장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령 지자체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만 접근성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와 주요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되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정도는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이소정, 2016).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노후준비 지표의 개발·보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제 7조), 정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노후준비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에 한 번씩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소정, 2016). 이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소정, 2009; 이소정, 2012; 김재호, 2014; 성혜영, 2016; 이소정, 2016; 이금룡, 2018)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의 정책적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3. 선행연구

노후준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다수 선행되어 왔다. 하지만 크게 다섯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노후준비에 대한 실태 조사(이영대·정명채, 1988; 박정희, 2007; 김지영, 2010; 이소정, 2011; 황인수, 2001; 이용재, 2013; 이윤경, 2013; 황남희, 2018),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신승희, 2010; 김성령, 2011; 조경진·김순미, 2012; 손기복, 2013; 전해연 외, 2014; 정영옥, 2014; 김지년, 2015; 허은진, 2017)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후준비 유형화 연구(권보경, 2015; 노은영, 2016; 한귀례, 2017), 노후준비경험 질적 연구(최영준, 2015; 이남·황정란, 2017; 채은희·박미숙, 2019), 노후준비지원정책관련 연구(이소정, 2009; 이소정, 2012; 김재호, 2014; 성혜영, 2016; 이소정, 2016; 이금룡, 2018)는 소수 진행되었다.

둘째, 노후준비를 살펴보는데 있어 최근에는 정서·사회적 측면(강유진, 2005; 김양이·이채우, 2008; 이정화, 2009; 최성재, 2009; 박현식, 2012; 강석옥·하규수, 2013; 채수미, 2016)의 연구들도 진행되고는 있지만 경제적 측면(박창제, 2008; 이정화, 2009; 나지나 외, 2010; 이윤경, 2013; 한혜진·정순희, 2013; 김정미·엄기옥, 2014; 이순희·김윤정, 2014; 김승완·전지혜, 2016; 서명희 외, 2017)과 건강에만 초점을 두는 연구(임경자, 2002; 이동옥, 2004; 이정화, 2009; 조혜진, 2012; 고민석·김승희, 2013; 정순돌·김성원, 2013; 배윤조·공순희, 2014)가 여전히 많아 다차원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노후준비라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특성, 삶의 방식, 환경, 신념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인식을 ‘여부’ 또는 ‘충분도’만을 조사하고 있어 노후준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김효신, 2008; 최현자 외 2009; 송진영·강영미, 2014; 유지연, 2016).

넷째, 노후준비 연구의 대상자가 중년층(김귀분 외, 2008; 배문조, 2009; 조추용 외, 2009; 이남·한정란, 2014; 정규형·박서영, 2014; 박효진, 2015; 한귀례, 2017), 베이비붐 세대(나지나 외, 2010; 박현식, 2012; 유인순·최수일, 2012; 정순돌·김성원, 2013; 권보경, 2015; 박명아 외, 2017; 고은비·계선자, 2018)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20대(김정임, 2009), 청·장년층(김희정,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고령화와 길어진 노년기에 있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특정한 연령층이 아닌 생애 단계별로 점검되어야 하나 세대 간 인식 비교를 한 연구(김경아, 2014; 어홍실, 2016; 류재홍, 2017; 김연화·황종규, 2017)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세대 간 인식을 질적 연구로 진행된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와 중년기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세대를 아우르는 질적 연구는 극소수이다.

제2절 세대의 특성

세대는 단순히 연령의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즉, 세대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 보다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의식을 가진 집단(cohort)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임희섭, 2002). 코호트로서의 세대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유사한 정서, 의식의 구조, 생활양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박재홍, 1995).

1. 베이비붐세대

가. 베이비붐세대의 개념

베이비붐 세대란 일반적으로 출생일수와 출산율이 급증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3.0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거

대 인구 코호트를 뜻한다(김용하·임성은, 2011).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관심을 받았고,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제 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마다 기준과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일본에서는 종전 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캐나다에서는 1947년부터 1966년에 태어난 사람, 호주에서는 1949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뉴질랜드에서는 1947년부터 1965년에 태어난 사람, 프랑스에서는 1946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사람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용하·임성은, 2011).

우리나라의 경우, 각 연구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를 정의하는데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서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에서 1974년까지 태어난 인구로 정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한국전쟁이 종료되고 출산 붐이 시작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도입 이전 시기인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석재은·이기주, 2010; 이소정, 2011; 김경호, 2013; 박지송, 2013; 유용식, 2013; 정순돌 외, 2013; 남순현·김미혜, 2014; 박창제, 2016; 백은영,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를 따를 것이며, 다수의 선행연구와 같이 베이비붐세대를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나.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이후 태어나 청소년기에는 해방기에 접어들었고, 청년기에는 4.19 혁명과 같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70년도에는 새마을 운동과 이후 산업화 물결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한 세대이다(박지송, 2013). 그러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인해 좌절을 맞았으며, 또 다시 찾아온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도 조기 퇴직, 실직, 생업기반의 붕괴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즉,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경제 성장 사회에서 중추 역할을 한 인구집단이다(통계청, 2016).

이 세대는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주택, 소비, 교육 등을 둘러싸고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였으며(통계청, 2016),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요시하는 동양적 가치관과 개인주의의 서구적 가치관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박창제, 2013). 이로 인하여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있어 헌신하면서도 노후준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첫 세대로 볼 수 있으며(통계청, 2010), 오늘 날 ‘샌드위치 세대(정경희, 2011)’, ‘끼인 세대(유용식, 2013)’라고 불리고 있다.

2015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는 약 7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이다(통계청, 2015). 이들은 조기 정년퇴직의 영향으로 과거 어떤 세대보다도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고 있으며,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오랜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할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유인순·최수일, 2012).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부분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 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실업 등으로 재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하여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재무적 잠재력이 취약한 상태이다(통계청,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책임(정경희, 2011), 자녀중심의 가치관(김혜경·마경희 2015), 자기 스스로의 부양책임이 있다(한정애, 2014)고 생각하여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자녀 양육의 강한 의무감을 보였으나, 가족 부양체계가 약해지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의 힘과 경제력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신의수, 2006).

2. 밀레니얼세대

가. 밀레니얼세대의 개념

밀레니얼세대의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미국의 세대 전문가인 Strauss&Howe(1991)가 처음 언급한 용어이다.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정의와 범위,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기존 선행연구자들의 밀레니얼세대에 대한 정의를 고찰해보면 김우성·허은정(2007)은 “Y세대는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보고 세계화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란 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서 에코 부머스, 밀레니엄 세대, 혹은 디지털세대로 불리운다.”라고 정의하였다. 예지은·진현(2009)은 “Y세대는 198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며 개인주의성향이 강하고 개방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정보화의 선도 계층이자 소비와 유행의 주역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상윤진 외(2015)는 “Y

세대는 198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출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포함한 세대로 21세기 중심이 되는 밀레니엄 세대,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세대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세대 전문가 Lancaster&Stillman(2010)은 그들의 저서 ‘MILLENNIAL GENERATION’에서 밀레니얼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며 Y세대, 구글 세대, 에코 부머(Echo boomer)세대, 테크 세대라고 규정하였으며, 미국의 사업자인 Fromm과 Garton(2015)의 저서 ‘Marketing to Millennials’에서는 밀레니얼세대가 1980년부터 2000년에 출생한 세대이며 베이비붐 세대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소비세대라고 정의하였다. 2013년 타임지에서는 밀레니얼세대를 ‘나나나 세대(Me Me Me Generation)’로 정의하였으며 이전 세대보다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를 중심으로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잡는 세대라고 설명하였다(진주화, 2016).

사전적 정의 및 선행 연구자들의 밀레니얼세대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밀레니얼세대는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세대로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들을 말하며, Y세대, 에코 세대, 테크 세대, 구글 세대, 넷 세대, Me Me Me 세대 등 불리는 용어는 다양하다. 하지만 같은 시대적 사고와 환경을 공유하고 동일한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레니얼세대를 다수의 연구(이상윤·안인숙, 2018; 신용환·이캐시연주, 2018)에서 사용한 정의를 참고하여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정의하였다.

나. 밀레니얼세대의 특성

밀레니얼세대는 부모 세대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이다(이상윤·안인숙, 2018). 소비패턴이 필수적 소비에서 문화적 소비로 들어선 세대에 등장한 최초의 세대이며, 정치적으로 민주화, 사회적으로 개방화를 통한 다원주의적 가치를 조금씩 내면화해가는 시기에 성장을 하였고 동시에 이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 계층이면서 기존의 사회구성과 사회질서를 강하게 거부하는 세대이기도 하다(한정애, 2014). 이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졌으며, 1인당 GNI²⁾는 베이비

2) 국민총소득(GNI)은 한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이 지표에는 자국민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은 포함되는 반면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된다(통계청, 2019).

부머 성장기와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배영미, 2011). 즉, 국내 총생산 및 1인당 국민 총소득 증가 등 경제적인 급 성장기를 경험하며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밀레니얼세대는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접해 외국어 구사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주체성이 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책임의식과 인내심 부족, 개인주의 성향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자신이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신만을 위한 소비생활을 즐기면서 K팝, IT 기기에 익숙하며 토론을 즐기고 있다. 즉, 이 세대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핵가족화 된 가정에서 사회화되어 합리적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며 개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가치가 공존하는 현재의 세대를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운주,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세대는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다. 먼저, 교육기간이 20대 후반까지 연장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진입의 고통이다.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힘든 일자리엔 지원자가 없고 공무원과 대기업에만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는 취업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고학력 니트(NEET)족³⁾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성인기 이행의 장기화로 만혼과 저출산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2012)에 따르면 구직 니트족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에코붐세대군에 해당하는 대졸자 니트족 비중은 20~2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밀레니얼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경제난 속에서 사회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병규·박덕배 외, 2012). 이 뿐만 아니라 취업난, 신용난, 주거난의 3중고로 겪고 있다. 이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유병규·박덕배 외, 2012). 이러한 인구고령화를 앞당길 것인가, 늦출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미래의 소비와 노후준비는 밀레니얼세대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3) 니트(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이다. 이 용어는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15~34세의 취업인구 가운데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이들은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할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 족과는 다르다(조대연 외, 2018).

제3절 Q방법론을 적용한 인식연구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연구

Q방법론을 적용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는 총 2편이 있다. 대상자는 베이비붐 세대, 또는 그 전 후 세대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표 2-1>. 권보경(2015)의 연구 결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5가지 유형인 ‘사회활동 중시형’, ‘일자리 중시형’, ‘경제적 지원 중시형’, ‘사회활동 중시하는 자기주도적 공동체주의형’, ‘의료복지 중시형’으로 나타났다. 노은영·최재성(2017)의 연구 결과, 노후불안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은 크게 ‘편안한 노후: 안분지족(安分知足)’, ‘불안한 노후: 무위고독(無爲孤獨)’으로 나누어 졌으며, 하위 인식은 8개의 인식유형인 ‘부양형’, ‘규범형’, ‘안정형’, ‘자아형’, ‘상실형’, ‘불만형’, ‘허세형’, ‘생계형’으로 유형화되었다.

<표 2-1> Q방법론을 적용한 노후준비 인식 연구

연구자	대상자	연구 내용
권보경 (2015)	베이비붐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노은영 (2016)	민주화세대, 베이비붐세대, 산업화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불안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 Q방법론적 접근

2. 집단 간 인식 비교 연구

Q방법론을 적용한 인식 비교 연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는 집단 간 인식을 비교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집단은 소비자과 전문가 집단, 전문가와 일반인, 한국인과 외국인 등 다양한 직업군과 일반인 및 국적에 따른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표 2-2>. 하지만 세대 간의 인식 비교 연구는 극소수이며, 노후준비에 있어 세대를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로 나누어 집단 간 인식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2-2> Q방법론을 활용한 인식 비교 선행 연구

연구자	비교대상	연구내용
이유미·황의갑 (2010)	경찰 일반인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인식 비교
장수미 (2011)	실습지도교수 현장 슈퍼바이저	사회복지 실습 슈퍼비전 내용에 대한 인식 비교
윤은자 외 3인 (2012)	일반인 의료인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비교
진상현 (2014)	원자력전문가 일반인	원자력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최우혁 (2014)	한국소비자 IKEA 전문가	IKEA 매장 및 제품에 대한 인식 비교
최순심 (2014)	한국인 외국인	프랑스 한류현상에 대한 인식 비교
이현정 (2015)	아나운서 시청자	아나운서 직업에 대한 인식 비교
신미진 (2015)	중년여성(건강) 중년여성(관절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비교
오정근 (2017)	한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인식 비교
이선미 (2018)	비서 상사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인식 비교
오정민·이상호 (2018)	중국인 방문객 한국인 방문객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방문객의 인식 비교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Q방법론의 개념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이며 동시에 연구방법이자 분석방법이다. 이는 스티븐슨에 의해 창안 및 개발되고, 맬콤 매클린에 의해 실용화되어 현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김흥규, 2008).

스티븐슨은 주관성을 ‘신비스러운 것도, 로맨틱한 것도 아니며, 단순히 타인 혹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의도를 갖고 행해지는 설득과는 달리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목적이 된다.

Q방법론은 연구대상자를 변인으로 하여 내적 차이를 밝히는 방법론으로(김순은, 2010), 개인 내에 차이를 근거로 경험적 발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R방법론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기법에서 드러나게 되며 Q방법론과 R방법론의 차이는 <표 3-1>과 같다.

<표 3-1> R과 Q방법론의 비교

	R방법론	Q방법론
연구대상	관찰 및 계량 가능한 객관적 속성	감정, 신념, 선호 등 주관적 속성
연구대상의 특성	정보, 필요, 합리성, 설득	커뮤니케이션, 욕구, 정서적, 즐김
변인	측정 항목 또는 자극	사람
측정방법	외부로부터 설명	내부로부터 이해
이론적 가정	변인에 대한 개인의 차이	개인 내의 의미성
과학적 목적	가설검증	가설생성
과학 논리	가설 연역적 방법	가설 발견의 논리

Q방법론의 절차는 선행연구(김순은, 1999)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Q표본 선정→P표본 선정→Q분류→Q자료 분석→Q자료 분석의 해석 절차로 진행되었다<표 3-2>.

<표 3-2> Q방법론 절차

순서	내용 및 유의사항
Q표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표본을 작성하는 단계는 R방법론의 무작위추출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 일반적으로 Q진술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비구조화된 표본을 활용하거나 구조화된 표본을 이용하게 된다. - Q진술문은 주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 사실을 설명하는 문장은 진술문이 될 수 없다. - Q표본 수가 크면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40개-60개가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문장은 짧고 용이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P표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방법론 연구에서는 P표본의 수가 적고 무작위 추출 요건을 수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다. - 학자에 따라 무작위 추출 또는 층화표본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들이 고루 분포되면 충분하다. - 톰슨의 스키마타 방식은 매우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에 있어 Q연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문가들에 의하면 P표본은 30명-50명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Q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분류 작업은 주관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도측정방식(개인 내에서의 선호도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 Q분류의 방법으로는 정규분포 형태의 분류의 틀을 제시하는 강제배분방식과 연구 대상자의 자의로 행해지는 자유배분방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Q방법론의 전통에서는 강제배분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 설문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설문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한 값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Q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용 QUANL'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한다.
Q자료 분석의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문의 요인가와 요인분석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요인해석 시 각각의 항목의 점수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항목들의 전체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2절 연구 설계

1. Q표본 선정

Q모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1차적으로 보조 자료를 확보하였고, 심층면접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3-3>. 진술문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자료원을 다양화하거나 면담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유리하다.

<표3-3> Q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 유형

자료유형	자료출처	
문헌연구	서적	1. 노후준비관련 서적 2.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및 재테크 서적
	학술논문(학위/학술지)	1. 노후준비 인식 관련 선행 연구 2. 노후준비 지원 정책 관련 선행 연구 3.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신문기사 및 댓글	1. 노후준비 실태 2. 노후준비 관련 정책
	인터넷 자료	노후준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블로그 글
심층면접	Tompson의 스키마타 방식을 적용하여 선정한 대상자 인터뷰<표3-4>	

먼저, 문헌연구를 위해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기사, 노후준비 문의에 대한 학술논문(학위논문, 학술지), 관련 서적, 블로그 및 카페 게시 글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심층면접은 톰슨의 스키마타 방식을 적용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련 주제에 상이한 수준의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표집 했을 경우 가장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김흥규,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대상자의 특성별로 면접 질문을 설계하였다<표 3-4>. 심층면접은 약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린 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3-4> 통슨의 스키마타에 따른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의 면접 질문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노후준비로 인해 기대하는 바람직한 노후는 무엇인가요? - 노후준비를 하는 동안 걸림돌이 된 점이 무엇인가요? - 노후준비는 개인 및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세대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노후준비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후준비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시나요? - 노후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는 언제인가요?
노후준비를 끝내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로 인해 노후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 미래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나요?
공정한 의견을 줄 수 있는 사람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 클럽 담당자 (2년차)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 실패는 어떠한가요? -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참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권위자 또는 전문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되어야 할 여러 제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엄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 사이의 연령층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 노후준비가 된 모습과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상상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 사회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주제에 관해 어둡거나 흥미가 없는 사람		
노후준비에 대해 관심이 낮은 밀레니얼세대 이후 세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서 노후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 어떤 사례였고 준비들 중 어떤 점이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었나요?

문헌연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Q모집단은 133개였고, 중복된 내용을 제외 후 60개가 추출되었다. 이 후, 선행연구(배계희, 1989; 김윤정·최윤희, 2004; 김정임, 2009; 권보경, 2015)를 참고하여 경제, 건강, 정서·사회, 정책, 기타로 분류하여 5가지 주제로 유형화하였다<표 3-5>.

<표 3-5> Q모집단의 구성

주제	경제	건강	정서·사회	정책	기타
진술문 수	12개	4개	12개	7개	7개

이 후, Q방법론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연구자 포함 3인이 모두 일치하게 선택한 진술문이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총 42개의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표 3-6>.

<표 3-6> Q진술문

번호	진술문	주제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경제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3	정신 멀쩡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6	은퇴 후 일을 한다면 직종, 환경보다 보수수준이 우선이다.	
7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8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준비해야한다.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11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 등과 같이 정년보장, 연금지급이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	
12	은퇴를 빨리 하고 싶지만 노후준비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	

13	우리나라는 의료비제도가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이 없다.	건강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아야 한다.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관리가 우선이다.	
16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끝이다.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서 · 사회
18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이성, 동성)가 필요하다.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21	부모가 키워주신 은덕을 알고 가족부양은 무조건 해야 한다.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25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28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소득이 단절된다는 것은 어쩌면 공포에 가깝다.	정부
29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에 대한 짐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	
31	기업에서도 노후준비에 대한 박람회, 직장 내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32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	
33	노후에 있어 정부는 돈만 주려고 하지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35	개인이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기타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38	진학, 취직, 결혼도 노후준비 중 하나이다.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1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 P표본 선정

P표본은 실제 Q분류에 참여하는 대상자이다. 즉, 작성된 Q진술문을 읽고 분류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응답자라는 의미이다(김순은, 1999). Q방법론은 R방법론과 다르게 개인이나 개인에게 존재하는 의미에 있어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방법으로서 사람이 변인, 표본은 항목이 된다. P표본의 수가 많은 경우 평균값으로 회귀한 Q표본의 항목별 점수는 다른 요인들을 1~2개의 요인으로 편중시켜 요인의 수를 제한하여 요인 분석 시 결과가 왜곡되어 통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표본의 원칙(small sample doctrine)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순은, 2010). 소표본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100명 이하, 50명 내외로 전제되고 있으며 경험에 의하여 30명-50명이 적절하다고 설명되고 있다(김흥규,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표본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베이비붐세대 37명, 밀레니얼세대 33명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 선정 시 앞서 심층인터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대상자의 연령, 직업, 종교, 가족사항, 월 소득, 노후준비여부, 연금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P표본의 구성은 <표 3-7, 3-8>과 같다.

<표 3-7> P표본의 특성 - 베이비붐세대

번호	성별	종교	나이(년)	직업	가족사항	월 소득(원)	국민연금 가입여부	노후준비 여부
1	남	무교	1960	전기	배우자, 아들2	200만	20년	○
2	여	기독교	1956	미화	아들2, 딸1	130만	25년	○
3	여	기독교	1963	자영업	배우자, 딸2	300만	16년	○
4	남	불교	1961	자영업	배우자, 딸1, 아들1	750만	없음	○
5	남	천주교	1961	건축	배우자, 아들3, 딸1	500만	18년	○
6	여	천주교	1960	사무직	배우자, 아들3, 딸1	300만	14년	○
7	남	기독교	1959	사회복지사	배우자, 아들1, 딸1	450만	없음	○
8	남	기독교	1962	사회복지사	배우자, 아들1, 딸1	400만	모름	○
9	남	기독교	1962	사회복지사	배우자, 아들1	120만	7년	○
10	여	기독교	1963	주부	배우자, 아들1, 딸1	300만	모름	○

11	여	천주교	1957	주부	배우자, 아들2	300만	없음	X
12	여	천주교	1956	활동보조	배우자, 아들2	100만	20년	O
13	여	기독교	1958	활동보조	배우자, 아들1, 딸1	140만	10년	X
14	여	기독교	1958	자영업	배우자, 아들1, 딸1	500만	모름	O
15	남	무교	1958	보험회사	배우자, 딸2	1500만	21년	O
16	남	천주교	1963	자영업	배우자, 아들1, 딸1	830만	29년	O
17	여	무교	1959	아르바이트	배우자, 아들1, 딸1	200만	19년	O
18	여	SGI	1962	네트워크	배우자, 아들2, 딸2	500만	5년	O
19	남	무교	1963	사무직	배우자, 아들1	400만	28년	O
20	여	천주교	1955	비즈니스	배우자, 아들1, 딸3	500만	10년	O
21	여	불교	1963	금융	배우자, 아들1, 딸1	500만	없음	O
22	여	무교	1963	자영업	배우자, 딸3	200만	27년	O
23	여	무교	1963	자영업	배우자, 딸2	700만	14년	O
24	남	기독교	1962	자영업	배우자, 딸2	500만	19년	O
25	여	불교	1963	주부	배우자, 아들1, 딸1	200만	7년	O
26	남	기독교	1963	사무직	배우자, 아들1, 딸2	200만	22년	O
27	여	무교	1961	활동지원	배우자, 딸3	100만	10년	O
28	여	기독교	1959	활동지원	배우자, 아들1, 딸1	200만	4년	O
29	여	기독교	1958	주부	배우자, 아들1, 딸1	0원	12년	O
30	여	천주교	1962	공무원	아들2	380만	33년	O
31	남	기독교	1961	회사원	아들1, 딸2	200만	29년	O
32	남	기독교	1955	목공	아들1, 딸1	200만	20년	O
33	여	무교	1958	주부	배우자, 아들1, 딸1	1000만	10년	O
34	남	무교	1962	자영업	아들2	1000만	30년	O
35	여	무교	1962	주부	배우자, 아들2, 딸1	400만	모름	O
36	여	무교	1962	주부	배우자, 아들1	300만	31년	O
37	남	불교	1956	자영업	배우자, 아들2	150만	20년	O

<표 3-8> P표본의 특성 - 밀레니얼세대

번호	성별	종교	나이(년)	직업	가족사항	월 소득(원)	국민연금 가입여부	노후준비 여부
1	여	무교	1994	학생	부모, 동생1	60만	2개월	O
2	여	무교	1994	사회복지사	부모, 동생2	180만	5년	X
3	남	무교	1980	간호조무사	배우자, 딸2	420만	15년	X
4	남	무교	1980	회사원	배우자, 자식2	400만	18년	O
5	여	무교	1980	회사원	배우자, 자식2	500만	20년	O
6	남	무교	1992	사회복지사	부모, 동생1	180만	1년	X
7	여	기독교	1992	사회복지사	부모, 오빠1, 동생1	189만	5년	X
8	여	무교	2000	학생	부모, 언니1	40만	X	X
9	여	무교	1999	학생	부모, 동생1	70만	X	O
10	여	무교	1991	회사원	부모, 언니1	330만	3년	O
11	남	무교	1986	없음	모, 동생3	250만	10년	O
12	여	무교	1998	학생	부모, 동생2	200만	없음	X
13	여	무교	1989	간호사	부모, 동생1	270만	5년	O
14	여	기독교	1987	사회복지사	배우자, 자식2	250만	3년	O
15	남	천주교	1983	사회복지사	부모	180만	3년	X
16	남	기독교	1992	사회복지사	부모, 누나1	180만	2년	O
17	남	무교	1997	공익	부모, 누나1	40만	X	X
18	남	무교	1989	엔지니어	1남, 1녀	300만	7년	X
19	여	기독교	1988	CS강사	배우자, 딸1, 아들1	180만	10년	O
20	남	무교	1986	엔지니어	부모, 누나1, 동생2	350만	6년	O
21	남	무교	1985	엔지니어	부모, 형	200만	3년	O
22	남	무교	1985	회사원	부모, 동생1	250만	5년	O
23	남	무교	1982	엔지니어	부모, 누나1	350만	10년	O
24	남	무교	1984	회사원	부모, 형1, 동생2	250만	10년	O
25	여	천주교	1987	사회복지사	부모, 동생2	220만	5년	X
26	여	기독교	1995	사회복지사	부모, 오빠1	200만	1개월	X
27	여	기독교	1993	회사원	부모님, 동생1	350만	3년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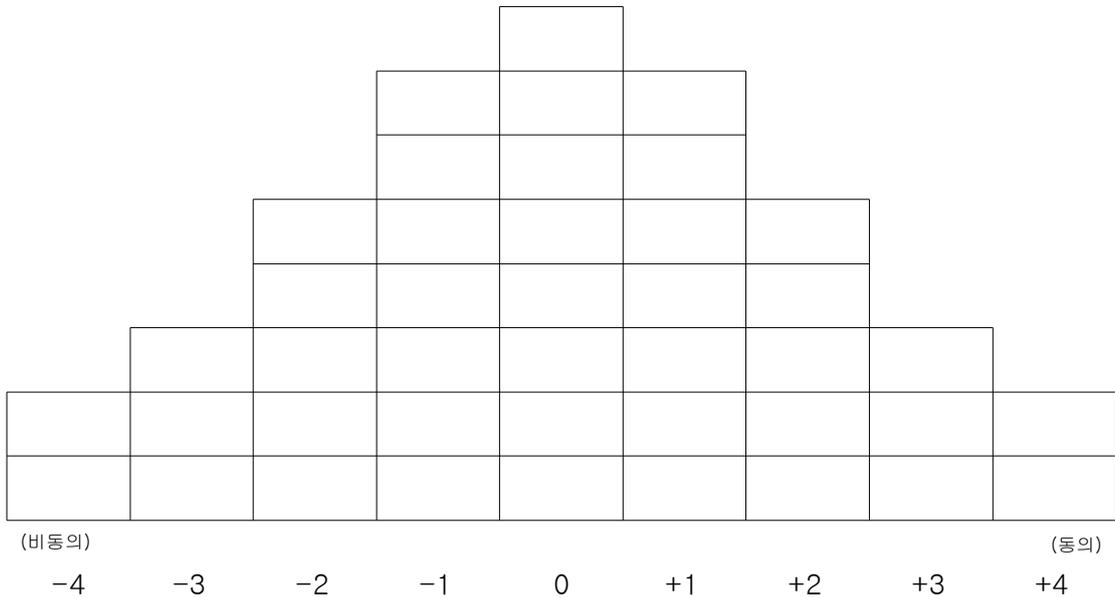
28	남	기독교	1999	학생	부모, 누나2	100만	X	X
29	남	무교	1998	군인	부모, 형1, 누나1	90만	X	X
30	여	기독교	1993	무직	부모, 오빠1	100만	2년	X
31	남	무교	1984	회사원	부모, 동생1	250만	5년	O
32	여	무교	1998	학생	부모, 언니1, 오빠1	50만	X	X
33	남	무교	1995	학생	모, 형1	50만	X	O

3. Q분류

Q표본과 P표본이 결정되면 다음 절차는 Q분류로 P표본을 대상으로 Q표본을 분류(Sorting)하는 작업이다. Q분류의 형태로는 강제배분방식과 자유배분방식이 있으나 Q연구 전통은 전자가 선호되고 있어(Brown, 1980; 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는 강제배분방식을 사용하여 Q분류를 실시하였다.

Q분류를 실시하기에 앞서 Q진술문을 응답자가 분류하기 편하도록 카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안내문,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Q카드 42개, 강제분포도를 준비하였다. Q분류 시 P표본을 대상으로 설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가장 동의하는 Q진술문을 가장 오른쪽(+4)부터 놓아주세요.”,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가장 왼쪽(-4)부터 놓아주세요.”라고 설명하면서 42개의 Q카드가 모두 배치되도록 하였다[그림 3-1]. 이 후 가장 양 극단에 있는 진술문들에 동의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추가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 표현하고 싶은 생각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그림 3-1] Q분류의 강제분포



4. 자료의 처리

자료처리의 단계는 Q분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필요한 점수로 환산하여 코딩하고, PC용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고유치와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한 후 각 요인을 유형화하여 적합한 이름으로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노후준비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의 인식 유형 및 결과 분석

1. 유형분석

노후준비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의 인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37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42개의 Q진술문을 가지고 Q분류를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표 4-1>. 유형1은 11명, 유형2는 10명, 유형3은 11명, 유형4는 2명, 유형5는 3명으로 분류되었다.

5개의 유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11.8951, 2.2823, 2.0783, 2.0163, 1.7918로 유형 1의 아이겐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설명변량은 집단 간 변량으로 전체 변량 중 독립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설명력을 가리키며 유형별로는 각각 0.3215, 0.0617, 0.0562, 0.0545, 0.0484으로 나타나 1유형이 32.15%의 변량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유형으로 나타났다. 누적변량은 54.23%로 나타나 유형의 설명력이 54.23인 것을 알 수 있으며, Q방법론의 목적은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표 4-2>.

<표 4-1> P표본(베이비붐세대)의 유형별 변량

유형	번호	P표본	변량
1유형 (11명)	1	03	2.2294
	2	28	1.8448
	3	30	1.3242
	4	20	1.2666
	5	24	1.0771
	6	13	0.9788
	7	23	0.9111
	8	25	0.8107
	9	08	0.6031
	10	04	0.4364
	11	26	0.2760

2유형 (10명)	1	12	1.0724
	2	01	1.0587
	3	36	0.6714
	4	05	0.6114
	5	32	0.6072
	6	18	0.5587
	7	06	0.5230
	8	14	0.5199
	9	31	0.5035
	10	16	0.3614
3유형 (11명)	1	10	1.2904
	2	11	1.2577
	3	29	1.2506
	4	19	1.1549
	5	22	1.0070
	6	27	0.8922
	7	33	0.8341
	8	15	0.7898
	9	02	0.5976
	10	09	0.5854
	11	37	0.2503
4유형 (2명)	1	34	1.2069
	2	07	0.7806
5유형 (3명)	1	17	1.7605
	2	35	0.9804
	3	21	0.8570

<표 4-2> P표본(베이비붐세대)의 아이겐값과 변량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아이겐 값	11.8951	2.2823	2.0783	2.0163	1.7918
설명변량(%)	32.15	6.17	5.62	5.45	4.84
누적변량	32.15	38.32	43.93	49.38	54.23

유형화할 수 있는 요인의 개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표 4-3>은 5개의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상관이 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R방법론의 경우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낮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Q방법론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반드시 두 요인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론적 개념들 간의 연계와 분리를 통해서 참 가성 생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0.65미만이며 0.061부터 0.634까지 분포되어 있다. 1요인과 3요인은 상관관계가 0.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진술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 요인 간의 상관관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1요인	1.000				
2요인	0.610	1.000			
3요인	0.634	0.560	1.000		
4요인	0.200	0.057	0.169	1.000	
5요인	0.506	0.436	0.497	0.061	1.000

2. 결과분석

Q방법론에서 유형은 인간의 믿음, 태도, 신념, 선호, 의견 등의 주관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합이다. 유형을 분류하고 해석할 때에는 분류된 결과뿐 만 아니라 인터뷰 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선입견 없이 연구자가 P표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서 주관적인 단점과 비판을 피하기 위함이다(김흥규, 1990).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류된 유형을 다음과 같다.

가. 제 1유형 : 필수불가결한 통합적 준비

제 1유형은 노후준비를 건강, 연금, 안정적 직장, 보험, 종교 등 다방면을 통합적으로 반드시 준비하되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제 1유형은 ‘필수불가결한 통합적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제 1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 4-4, 4-5>와 같다. 진술문들을 통해 건강관리, 연금, 영적 준비, 보험, 저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준비는 노후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면서 노후준비의 통합적 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통합적 준비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 또한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통합적 준비와 이에 따른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노후준비를 통합적으로 해야 하며, 통합적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노후에 쓸쓸하고 별 볼일 없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노후준비 뿐 아니라 자식 교육에도 힘쓰며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제 1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히려 노후에는 시간이 여유로워 취미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P=3).”, “의식주만 갖고 살아갈 수 없으므로 내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노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P=28).”, “나이 들어서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마음 수양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살게 된다면 보람된 노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P=28).”,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가족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준비에 있어서 건강은 우선되어야 한다(P=30).”, “노년을 위해 건강관리와 운동을 하면서 노후에는 여행을 다니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저축, 건강, 일을 잘 하고 있다(P=20).”, “돈을 모으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유지와 자녀교육을 위함이다. 노후준비는 국가 예산 부족 때문에 개인적인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이 부족한 부분만을 국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P=24).”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젊을 때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노후에는 희망하는 일, 예를 들어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이
 에 더불어 자식 부양은 필수이며 노후준비를 하는 것, 또는 돈을 모으는 이유는 곧 자
 식과 가족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 자신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와 가족
 케어까지 함께 되는 것이 노후준비라고 생각하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73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71
11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정년보장, 연금이 지급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	1.45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21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아야 한다.	1.20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09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08
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	1.00
18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1.33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40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44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46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	-1.58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81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09

<표 4-5> 제 1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1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정년보장, 연금이 지급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	1.445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1.376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1.431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541

나. 제 2유형 : 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준비

제 2유형은 노후준비를 안정적인 준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에 있어 연금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금과 같이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2유형은 ‘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제 2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6, 4-7>과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제 2유형은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 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금 의존으로 인해 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제도가 아직 부족하여 이러한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가족부양의 측면에서는 가족부양은 굳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식과 자신의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유형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제 2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퇴직금은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P=1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자식들이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다(P=12).”,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반 저축은 별로 이율도 없고 모아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12).”, “현재의 의료비 제도는 저비용 저부담, 고비용 고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노후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

결방안을 마련하여 저비용 고부담, 고비용 저부담으로 변화가 되면 좋겠다(P=1)”,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다보면 연금 지출의 부담이 커지고 연금 수입이 줄다보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어 연금을 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다(P=1).”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제 2유형은 대표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과 마찬가지로 연금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금 고갈을 같이 걱정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 이상에 따른 의료비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료비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표 진술문, 타 유형과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노후준비에 있어 안정적 노후 준비인 연금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각자의 위치에 있어 노후준비를 잘 하기를 바라며, 해결이 된다면 의료비제도에 대한 문제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72
8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준비해야 한다.	1.67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65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1.55
16	돈 많이 먹어도 아프면 끝이다.	1.48
32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	1.04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23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42
13	우리나라는 의료비 제도가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이 없다.	-1.46
21	부모가 키워주신 은덕을 알고 가족부양은 무조건 해야 한다.	-1.62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	-1.62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1.95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32

<표 4-7> 제 2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32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	1.733
16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끝이다.	1.424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386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1.160
29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에 대한 짐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1.001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065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160
13	우리나라는 의료비제도가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이 없다.	-1.182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1.226
38	진학, 취직, 결혼도 노후준비 중 하나이다.	-1.545
21	부모가 키워주신 은덕을 알고 가족부양은 무조건 해야 한다.	-1.757

다. 제 3유형 :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

제 3유형은 노후준비를 일종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하면서 사회 참여를 계속 하되 굳이 보수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소득 단절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제 3유형을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라고 명명하였다.

제 3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8, 4-9>와 같다.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소득 단절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최소 70세까지는 일하고 싶으며,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Q32).’는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반대하는 것을 보아 이 유형은 특히 자신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제 3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어 지속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다. 제 2의 직장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10).”, “정년퇴직을 하면 소득은 없고 건강악화로 의료비가 증가해 취미나 여가생활은 물론 고독하고 쓸쓸해서 우울감과 소외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정년퇴직과 소득 단절에 대해 벌써부터 두렵다(P=29).”, “고령화시대에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노인 일자리도 부족하다(P=19).”, “늙을수록 금전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노인대우를 받으려면 경제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때문에 취업은 곧 노후준비이며 소득이 적더라도 소일거리가 필요하다(P=11).”, “작은 수입이라도 동반되어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유지되며 규칙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의 능력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P=22).”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노후에 있어 제2의 직장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익이 적은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이에 따른 일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 내용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있어 청년 일자리도 물론 부족하지만 노인 일자리도 필요하며, 늙을수록 금전적으로 충족되어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형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8>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8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소득이 단절된다는 것은 어쩌면 공포에 가깝다.	1.83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50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44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34
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	1.29
31	기업에서도 노후준비에 대한 박람회, 직장 내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1.22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10
5	개인이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1.08

6	은퇴 후 일을 한다면 직종, 환경보다는 보수수준이 우선이다.	-1.29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31
32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	-1.42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58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1.86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1.93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2.11

<표 4-9> 제 3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774
28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소득이 단절된다는 것은 어쩌면 공포에 가깝다.	1.586
35	개인이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1.329
11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같이 정년보장, 연금지급이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	-1.091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1.098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46
32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	-1.349

라. 제 4유형 : 가족, 신, 정부, 사회 공동의 몫

제 4유형은 노후준비를 개인도 해야 하지만 개인 뿐 아닌 가족, 신, 정부, 사회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4유형은 ‘가족, 신, 정부, 사회 공동의 몫’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4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10, 4-11>과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영적 준비, 건강관리, 저축,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노후준비 실천에 대한 한계와 막막함 또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노인 복지에 힘을 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4유형은 노후준비가 필요함은 알

고 있으나 개인이 맡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껴 영적인 준비에 의지하기도 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노인복지에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제 4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므로 개인 뿐 아니라 정부, 가족 모두가 도와야 한다(P=34).”, “노후는 반드시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 관리와 재물,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34).”, “생로병사의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7).”, “본인의 노력과 국가지원이 합쳐져서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도 더욱 부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P=7).”,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더욱 잘해야 한다(P=7).”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제 4유형은 노후준비는 개인 뿐 아니라 정부, 가족 모두가 도와야 하며 신앙생활을 더욱 잘 하여 생로병사의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 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제 4유형은 개인도 노후준비에 대해 열심히 준비해야 하지만 막막하기 때문에 영적 준비와 가족, 정부 등에 의존하기도 하고, 고령사회에 있어 노후준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4-10>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2.08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73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71
14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25
31	기업에서도 노후준비에 대한 박람회, 직장 내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1.23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12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이 않아 실천이 어렵다.	1.12
5	개인이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1.09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23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1.47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49
18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1.60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60
29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에 대한 짐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1.60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2.45

<표 4-11> 제 4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455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2.140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912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92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582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1.515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426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306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1.108
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	-1.018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	-1.151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189
16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끝이다.	-1.196
29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에 대한 짐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1.559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1.606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955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2.296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2.380

마. 제 5유형 :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유지

제 5유형은 노후준비를 가족 및 친구 등과의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5유형은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유지’라고 명명하였다.

제 5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12, 4-13>과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Q8).’가 다른 유형에 비해 극도로 찬성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반대하는 진술문인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Q27).’ 또한 극도로 반대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후에 있어 가족과 친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뿐 아니라 노후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Q23).’과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Q18).’가 모두 반대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를 통한 정서적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제 5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는 두 명은 되어야 한다. 자녀도 혼자면 너무 외롭거나 의견을 공유하지 않을 것 같다(P=17).”, “나이가 들수록 친구, 언니, 동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간다면 더 힘들 것 같다(P=17).”,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는 꼭 필요하다.(P=17)”, “노후에 친구가 없다면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대화할 이야기 상대는 꼭 필요하다(P=35).”, “노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가 많이 될 것 같다(P=35).”, “정서적으로 충만한 걸 원한다(P=21).”,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세상이 원만해진다(P=21).”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제 5유형은 노후에 가족, 친구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웃과의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와 추후 손주들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뷰 정서적 측면의 내용은 제 1,2,3,4 유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제 5유형의 차별된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 진술문, 타 유형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하여 제 5유형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특별히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활한 대인관계를 통해 노후에 정서적인 지지 및 소통을 원하는 유형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12> 제 5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	2.38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52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1.48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47
8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준비해야 한다.	1.35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기금이 고갈되어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1.20
38	진학, 취직, 결혼도 노후준비 중 하나이다.	1.03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02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1.02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19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20
18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1.35
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1.48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06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2.38

<표 4-13> 제 5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2.080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	1.992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196
37	나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136
28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소득이 단절된다는 것은 어쩌면 공포에 가깝다.	-1.008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302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371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520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639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2.191

바. 베이비붐세대의 공통 진술문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에 있어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온 진술문은 <표 4-14>와 같다. 공통 진술문은 반대 진술문으로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Q20).’이다. 이 진술문을 반대 의미로 해석한다면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다.’가 되겠으나 이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된다(P=9, P=18, P=20, P=24).” 라고 해석되고 있다. 즉, 노후준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노후준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인식하는 공통의견임을 알 수 있다.

<표 4-14> 베이비붐세대의 공통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26

제2절 노후준비에 대한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유형 및 결과 분석

1. 유형분석

노후준비에 대한 밀레니얼세대의 인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33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42개의 Q진술문을 가지고 Q분류를 4개의 유형으로 실시하였다. 4개의 유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8.3118, 3.0446, 2.5697, 2.2766로 유형1의 아이겐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설명변량은 집단 간 변량으로 전체 변량 중 독립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설명력을 가리키며 유형별로는 각각 0.5130, 0.1879, 0.1586, 0.1405으로 나타나 1유형이 51.3%의 변량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닌 유형으로 나타났다. 누적변량은 총 100%로 나타나 유형의 설명력이 100%임을 알 수 있다<표 4-15>.

<표 4-15> P표본(밀레니얼세대)의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아이겐 값	8.3118	3.0446	2.5697	2.2766
설명변량(%)	51.30	18.79	15.86	14.05
누적변량	51.30	70.09	89.59	100

밀레니얼세대를 4개의 유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요인 3에 적재된 Q소트 중 28.89퍼센트(6명 중 2명)가 반대 극에 적재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독립시켜 다섯 번째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총 5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유형1은 13명, 유형2는 9명, 유형3은 4명, 유형4는 5명, 유형5는 2명으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6> P표본(밀레니얼세대)의 유형별 변량

유형	번호	P표본	변량
1유형 (13명)	1	08	1.7187
	2	29	1.4317
	3	11	1.3168
	4	30	1.2779
	5	16	1.2029
	6	04	1.1031
	7	24	0.9288
	8	10	0.8776
	9	07	0.7234
	10	33	0.6510
	11	32	0.5939
	12	28	0.4589
	13	17	0.4222
2유형 (9명)	1	25	1.9639
	2	27	1.4496
	3	01	1.0469
	4	26	0.9771
	5	02	0.8675
	6	09	0.8188
	7	14	0.6843
	8	31	0.5920
	9	06	0.4768
3유형 (4명)	1	13	1.2451
	2	05	1.0882
	3	19	0.9092
	4	15	0.5033
4유형 (5명)	1	21	1.4366
	2	23	1.3910
	3	12	0.9916
	4	03	0.6631
	5	20	0.5505
5유형 (2명)	1	18	1.5435
	2	22	0.9619

유형화할 수 있는 요인의 개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를 확인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표 4-17>은 4개의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높을수록 상관이 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R방법론의 경우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낮으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Q방법론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반드시 두 요인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론적 개념들 간의 연계와 분리를 통해서 참 가설 생성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적으로 0.5미만이며 -0.411부터 0.442까지 분포되어 있어 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므로 각 요인의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1요인과 3요인의 상관관계가 0.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진술문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7> 요인 간의 상관관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1요인	1.000				
2요인	0.426	1.000			
3요인	0.442	0.233	1.000		
4요인	0.213	0.204	0.230	1.000	
5요인	0.094	0.064	-0.411	0.257	1.000

2. 결과해석

가. 제 1유형 : 막막한 통합적 준비

제 1유형은 노후준비를 건강, 삶의 질, 저축, 보험, 가족 부양, 정서적 준비 등 통합적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제 1유형은 ‘막막한 통합적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제 1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18, 4-19>와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제 1유형은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역시 중요하며, 노후에 있어 삶의 질 향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Q17).’와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Q37).’가 대표 찬성진술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적 준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Q40).’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Q22).’가 대표 반대 진술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가 필수불가결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 1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를 위해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이민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은 안 된다(P=1).”, “현재 나는 젊어서일지 몰라도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어렵게 느껴지고 아직 먼 미래라는 생각이 든다(P=29).”, “노후준비에 있어 자신이 스스로 관심을 갖거나 교육적 시스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P=29).”, “노후에는 혼자 있기 보단 친구나 아내가 있으면 많이 고독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주변에 노후준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어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P=11).”, “경제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죽기 전까지 삶에 필요한 돈이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별 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P=30).”,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필요하다(P=16).”, “소득별 세금 부여(복지비용 마련), 고소득자일수록 개인연금 및 개인보험가입이 많아 노후준비는 되어있으나 저소득층은 노후준비불가로 고소득자

가 그 만큼의 비용부담을 해주어야 한다(P=4).”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대표 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에서 언급된 통합적인 준비의 필요성과 노후준비에 대한 막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외에 정부지원의 필요성, 교육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주체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제 1유형은 노후준비를 통합적으로 스스로 꼭 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 하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해하는 유형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18> 제 1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6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끝이다.	2.02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41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35
8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준비해야 한다.	1.29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다.	1.28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13
3	정신 멀쩡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1.12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더 들어놓아야 한다.	1.12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09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27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1.28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38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1.41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8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53

<표 4-19> 제 1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16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끝이다.	1.943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638
21	부모가 키워주신 은덕을 알고 가족부양은 무조건 해야 한다.	1.330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1.075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22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2.035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2.227

나. 제 2유형 : YOLO라이프⁴⁾ 실천

제 2유형은 노후준비를 현재를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현재를 잘 보낸다면 노후 또한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며, 노후에도 나 이외에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제 2유형은 ‘YOLO 라이프 실천’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20, 4-21>과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에 있어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후에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며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고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제 2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노후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P=27).”, “노후에 있어 의, 식, 주 해결은 단지 일

4)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는 최근 등장한 신조어이자 트렌드이다.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태도를 뜻하며, ‘오늘을 즐기자’라는 Carpe Diem과 유사한 표현으로 ‘한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며 절약하는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는 현재를 중시하는 20-30대의 새로운 가치관이다(오수연, 2017).

부일 뿐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싶다. 그것은 부수적인 부분이며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다면 이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P=27).”, “노후만을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노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P=25).”, “현재 사회가 안정을 위해 공무원, 공기관 등의 직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자신에 적성 등과 관계없이 진로가 정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러한 세대가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P=25).”, “지금은 열심히 살되 노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즐기면서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즐기고 싶다. 노후에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를 많이 즐기고 싶기 때문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싶다(P=1).”, “종교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영적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 물론 마음수양을 기반으로 한 영적 준비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영적 준비보다는 그냥 현재의 삶 자체를 의미 있고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1).”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대표 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과 같이 현재를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다보면 노후 또한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노후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관 등의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진로를 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노후를 위해 현재를 빠듯하게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희망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제 2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현실을 중시하는 요즘 20대와 30대의 새로운 가치관인 율로를 실현하고 있는 율로족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20> 제 2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2.43
41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6
25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1.82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61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14
28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소득이 단절된다는 것은 어쩌면 공포에 가깝다.	1.12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	1.09
32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되면 안 된다.	-1.10
6	은퇴 후 일을 한다면 직종, 환경보다는 보수수준이 우선이다.	-1.71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1.83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1.93
18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2.09

<표 4-21> 제 2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2.217
25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690
41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645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396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167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121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1.213
6	은퇴 후 일을 한다면 직종, 환경보다는 보수수준이 우선이다.	-1.221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268
3	정신 멀쩡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1.329
18	노후를 준비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1.562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2.035

다. 제 3유형 :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준비

제 3유형은 노후준비를 각자의 역할에 맞게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하며, 국가는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제 3유형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준비’라고 명명하였다.

제 3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22, 4-23>과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제 3유형은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어 노후준비에 따른 막막함이나 노후에 대한 씁쓸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에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민간보험, 사적연금, 일자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며,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는 박람회 및 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각자의 역할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제 3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세계 11위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2018년 기준).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복지 혜택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P=13).”,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도 변할 수 있다. 국민 연금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납세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정부는 또한 세금 이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P=13).”, “죽음의 시기를 알 수 없고, 현재에 만족하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기대거나 그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신, 타인과의 비교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P=5).”, “국민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의 노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P=5).”,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좋다. 그러나 여전히 고액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비 급여 진료의 항목이 많아 본인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소득 단절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보장을 위해 민간보험 또한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P=19).”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대표 진술문, 타 유형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에서 언급된 ‘노후준비는 개인이 해야 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복지 혜택이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세금 탈세 및 비 급여 항목에 따른 의

료비 과 부담에 대한 현실 비판도 함께 하고 있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진술문, 타 유형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제 3유형은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노후준비에 있어 최소한의 부분을 정부에서 보장해주며 소득보장 및 노후준비 정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고 있는 유형으로 유추된다.

<표 4-22> 제 3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아야 한다.	1.88
8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준비해야 한다.	1.55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53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40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36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33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23
31	기업에서도 노후준비에 대한 박람회, 직장 내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1.16
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	1.01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1.01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18
18	노후를 생각하면 씁쓸하고 별 볼일 없다.	-1.21
41	노후준비보다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33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1.34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50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1.66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8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1.72

<표 4-23> 제 3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2.621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아야 한다.	2.152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685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387
7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1.259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173
8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적연금도 준비해야 한다.	1.115
34	현재 시행중인 노후준비서비스가 있긴 있는지 모르겠다.	-1.076
25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1.167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446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	-1.446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888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2.222
41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2.347

라. 제 4유형 : 무조건적인 노후자금 마련

제 4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노후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4유형은 ‘무조건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4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24, 4-25>와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대표 찬성진술문에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Q2).’, ‘정신 멀쩡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Q3).’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준비에 있어 돈이 가장 중요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표 반대진술문에 ‘우리나라는 의료비제도가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이 없다(Q13).’,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Q7).’

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후에 의료비에 대한 걱정과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노후를 위해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있어야 하지만 번 돈을 자식교육에 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 또한 확인된다.

실제로 제 4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고, 퇴직금은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P=21).”, “젊을 때부터 번 돈은 자식에게 쓰는 것보다 나에게 써야 한다(P=21).”, “똑같이 일하는데 정년 여장이 된다고 해서 돈을 덜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P=23).”,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P=23).”, “지금 당장 대출금 갚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노후가 막막하다(P=2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용돈 받는 기분이 들 것 같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P=23).”,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가게 되면 모은 돈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돈을 적게 받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으로 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임금을 줄이면 안 된다(P=3).”, “돈이 있으면 아파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P=3).”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에서 나타난 특징인 노후준비에 있어 자금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현재의 대출금을 갚기에도 막막하여 노후가 막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나 이 또한 병원비가 나가면 모은 돈을 다른 곳에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년연장에 있어서도 일을 더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론적으로는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제 4유형은 자금문제로 인해 노후까지 막막하며 노후에 있어서도 자금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임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24> 제 4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2.64
3	정신 멀쩡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1.63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48
5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을 해야 한다.	1.41
25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1.30
36	노후준비는 정부나 가족이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	1.22
41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2
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	1.04
13	우리나라는 의료비제도가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이 없다.	-1.00
27	노후를 위하여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1.11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25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9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44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1.67
7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2.31

<표 4-25> 제 4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3.545
42	노후준비에 있어 이민이 답이다.	1.454
6	은퇴 후 일을 한다면 직종, 환경보다는 보수수준이 우선이다.	1.061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127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203
7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2.206

마. 제 5유형 : 실천 불가능한 이상일 뿐

제 5유형은 노후준비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실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제 5유형은 ‘실천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5유형의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은 <표 4-26, 4-27>과 같다. 진술문들을 분석한 결과 대표 찬성진술문에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Q20).’,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Q39).’,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Q17).’,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Q20).’는 진술문이 배치되어 있고, 대표 반대진술문에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Q37).’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막막하고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준비의 필요성마저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Q41).’가 대표 찬성진술문에 있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준비가 있는지 모르겠다(Q22).’와 이어지는 것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제 5유형의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후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나 매체 등이 없다(P=18).”, “중간에 내는 세금을 생각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굳이 정년연장까지 하면서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P=18).”, “퇴직금을 연금으로 내면 다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P=18).”, “노후준비는 가르쳐주는 이가 없고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막막하다(P=18).”,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사회란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P=22).”, “한 달 급여로는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저축할 여력이 없다(P=22).”, “노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P=22).”,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P=22).”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대표 진술문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에서 설명된 노후준비에 대한 막막함과 실천 불가능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알려주는 사람과 매체가 없어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보제공을 해주는 매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의 월급으로는 저축하기에

부족하고 관심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되고 있어 현실에 부딪혀 노후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표진술문,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 인터뷰를 통해 제 4유형은 현실의 고단함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생각하면 막막한 감정이 먼저 밀려오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매체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6> 제 5유형의 긍정적 동의와 부정적 동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2.28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2.28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71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	1.36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	1.36
17	노후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1.14
3	정신 멀쩡하고 튼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1.14
26	노후준비는 의, 식, 주 해결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까지도 준비되어야 한다.	1.14
41	노후준비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1.05
13	우리나라는 의료비제도가 잘 되어 있어 노후에 의료비 걱정이 없다.	-1.01
7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임금을 덜 받아도 된다.	-1.05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아야 한다.	-1.05
24	기도, 명상, 신앙 등 마음 수양을 통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	-1.14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1.36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62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2.28

<표 4-27> 제 5유형과 타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진술문(±1.00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 점수
20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2.840
22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나싶다.	2.382
39	노후준비에 대하여 보고 배운 것이 많지 않아 실천이 어렵다.	2.304
18	노후를 준비하면 쓸쓸하고 별 볼일 없다.	1.763
1	젊을 때부터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1.492
23	노후는 혼자이므로 고독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	1.468
40	노후준비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73
19	노후에는 외롭지 않게 친구가 필요하다.	0.654
4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70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1.105
38	진학, 취직, 결혼도 노후준비 중 하나이다.	-1.368
14	뜻밖의 건강에 있어 민간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아야 한다.	-1.512
9	퇴직금은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1.724
16	돈 많이 벌어도 아프면 끝이다.	-1.731
37	나는 노후를 위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1.892
15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음주, 금연, 식단 관리 등 건강 관리가 우선이다.	-2.584

제3절 노후준비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비교

각 세대별 유형과 특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인식의 차이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는 노후준비의 막막함에 대한 인식 차이,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 부양가치관에 대한 인식 차이,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인식 차이,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8>과 같다.

<표 4-28>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비교

번호	인식 차이	내용
1	노후준비의 막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준비에 대한 막막함은 베이비붐세대에서는 1개 유형에서만 나타났으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3개 유형에서 나타남.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고 어느 정도 노후준비가 되어 있어 다른 유형들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막막함에 따른 대처방안도 다르게 나타났음. - 베이비붐세대는 막막함에 따라 가족, 신, 정부, 사회 등의 공동의 몫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역할들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밀레니얼세대는 대부분 막막함에 근원을 미디어 및 교육 등 매체의 부족에 두고 있어 미디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노후준비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노후준비를 회피하는 유형도 존재함.
2	출산 및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를 위해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형이 베이비붐세대에서는 다수 존재하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집중하고 싶다고 인식하는 유형이 다수 존재함. - 이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과 노후에 자기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3	부양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치관에 있어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으로 나눌 수 있음. - 가족부양에 대한 인식 차이 : 가족부양에 대해 베이비붐세대가 오히려 더 관대한 경우가 있고 밀레니얼세대가 더 지지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기존의 부양가치관에 대한 세대 갈등 의견에 반대는 결과로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차이 : 베이비붐세대보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더 많은 유형에서 자식교육보다는 자신에게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베이비붐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식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도 존재함.
4	노후자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세대의 모든 유형에서는 노후준비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밀레니얼세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 나타남. - 이를 통해 밀레니얼세대의 일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 겪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5	노후준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비붐세대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공통진술문이 1개 발견되었으나 밀레니얼세대에서는 공통진술문이 발견되지 않았음. - 베이비붐세대의 공통진술문은 반대진술문으로 ‘노후준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Q20).’가 나타남. 이에 대해 베이비붐세대는 노후준비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이 진술문은 밀레니얼세대 5유형의 가장 반대하는 대표진술문에 배치되어 있음. - 따라서 밀레니얼세대 중에서는 노후준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노후준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를 대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노후준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인식 유형과 특징을 설명하고 인식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세대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세대가 가진 가치, 인식 등 주관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인식 유형을 확인하고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과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노후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각 세대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인간의 주관적 인식 구조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의 절차는 Q표본 선정 → P표본 선정 → Q분류 → Q자료 분석 → Q자료 분석의 해석 순으로 행해진다. Q표본 선정을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통해 133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Q모집단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외 후 60개의 모집단이 추출되었다. 이 후, 5가지 주제인 경제, 건강, 정서·사회, 정책, 기타로 범주화한 후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에게 자문을 연구자 포함 3인이 모두 일치하게 선택한 진술문 42개를 추출하여 총 42개의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 선정에 있어 심층인터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연령, 직업, 종교, 가족사항, 월 소득, 노후준비 여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이 후, 소표본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베이비붐세대 37명, 밀레니얼세대 33명으로 선정하였다. Q분류는 약 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강제배분방식을 사용하여 9점 척도에 Q분류를 실시하였다. Q분류를 마친 후에는 Q분류를 실시한 자료를 코딩하고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유형이 각 각 5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그 결과 각 유형에 따라 노후준비를 인식하는 요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보면, 제 1유형은 ‘필수불가결한 통합적 준비’, 제 2유형은 ‘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준비’, 제 3유형은 ‘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 제 4유형은 ‘가족, 신, 정부, 사회 공동의 몫’, 제 5유

형은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유지’로 유형화되었다.

제 1유형인 ‘필수불가결한 통합적 준비’로 인식하는 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건강관리, 연금, 영적 준비, 보험, 저축 모두 중요하여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준비는 노후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노후준비 뿐 아니라 가족 케어까지 함께 되는 것이 노후준비라고 인식하고 있어 젊은 세대들을 위한 노후준비 교육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인 ‘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준비’로 인식하는 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연금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연금과 같이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 사적 연금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금이 고갈되어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한 내재되어있다. 또한 노후에는 건강 이상에 따른 의료비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의료비 제도가 따라주지 못 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유형이다.

제 3유형인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득창출’로 인식하는 유형은 최소 70세까지 일하고 싶으며 소득 단절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유형이다. 타 유형과는 다르게 정년을 연장시키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후에는 제 2의 직장 마련이 중요하고 수익이 적은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이에 따른 일을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다.

제 4유형인 ‘가족, 신, 정부, 사회 공동의 몫’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개인이 맡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껴 영적인 준비에 의지하기도 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노인복지에도 의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즉, 타 유형과는 다르게 노후준비에 대한 한계와 막막함을 느끼는 유형으로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노인복지에 힘써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개인도 열심히 노후준비를 해야 하지만 고령사회에 있어 노후준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제 5유형인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유지’로 인식하는 유형은 가족 및 친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웃과의 관계와 추후 손주들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는 유형이다. 타 유형과는 다르게 정서적 측면의 진술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인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정서적지지 및 소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과 취미생활 동반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노후에 있어서 대인관계 유지와 정서적지지 및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베이비붐세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에 있어 모든 유형이 공통적으로 나온 진술문은 반대 진술문으로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Q20).’이다. 이 의미는 ‘노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된다. 즉, 노후준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노후준비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공통 의견이다.

다음으로 밀레니얼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보면, 제 1유형은 ‘막막한 통합적 준비’, 제 2유형은 ‘YOLO라이프 실천’, 제 3유형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준비’, 제 4유형은 ‘무조건적인 노후자금 마련’, 제 5유형은 ‘실천 불가능한 이상일 뿐’으로 유형화되었다.

제 1유형인 ‘막막한 통합적 준비’로 인식하는 유형은 건강, 삶의 질, 저축, 보험, 가족 부양, 정서적 준비 등 통합적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베이비붐세대 1유형과는 다르게 노후준비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에 따라 통합적 준비를 위해 정부지원과 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는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꼭 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 하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해하고 있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인 ‘YOLO라이프 실천’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현재를 즐기면서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면 노후 또한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타 유형과 다르게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도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다는 것을 보아 다소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나 현실을 중시하는 요즘 20대와 30대의 새로운 가치관인 YOLO를 실현하고 있는 YOLO족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형이다. 또한 이 유형은 노후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관 등의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노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노후 모두 자신을 위한 삶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제 3유형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준비’로 인식하는 유형은 개인은 자신의 노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하며, 국가는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노후준비에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민간보험, 사적연금, 일자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고 국가와 기업차원에서는 박람회 및 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최소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각자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와 복지혜택이 좋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금 탈세 및 비 급여 항목에 따른 의료비과 부담에 대한 현실 비판을 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최소한의 부분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보장해줄 수 있도록 소득보장 및 노후준비 정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고 있는 유형이다.

제 4유형인 ‘무조건적인 노후자금 마련’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노후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타 유형들과는 다르게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Q2).’라는 의견에 가장 찬성을 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이 또한 병원비가 나가면 모은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돈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부분은 노후를 위해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있어야 하지만 번 돈을 자식 교육에 쓰는 것보다 자신에게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 이중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부양가치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유형이기도하다. 따라서 월 소득으로는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대출금을 갚기에도 빠듯한 현실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어 노후에 있어서도 자금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제 5유형인 ‘실천 불가능한 이상일 뿐’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노후준비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실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노후준비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과 매체가 없어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매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 있어 현재의 월 소득으로는 저축하기에 부족하고 사실 관심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현실의 고단함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생각하면 막막한 감정이 먼저 밀려오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매체와 교육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노후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크게 5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노후준비의 막막함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막막함은 베이비붐세대에서는 1개 유형에서만 나타났으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3개 유형에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고 어느 정도 노후준비가 되어 있어 다른 유형들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막막함에 따른 대처방안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는 막막함에 따라 가족, 신, 정부, 사회 등의 공동의 몫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역할들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밀레니얼세대는 대부분 막막함에 근원을 미디어 및 교육 등 매체의 부족에 두고 있어 미디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밀레니얼세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노후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노후준비를 회피하는 유형도 존재하였다.

둘째, 출산 및 결혼 가치관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노후를 위해 비혼 또는 무자녀를 지향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형이 베이비붐세대에서는 다수 존재하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에는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집중하고 싶다고 인식하는 유형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과 노후에 자기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부양가치관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양가치관에 있어서는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부양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면 가족부양에 대해 베이비붐세대가 오히려 더 관대한 경우가 있고 밀레니얼세대가 더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기존의 부양가치관에 대한 세대 갈등 의견에 반대는 결과로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차이의 경우 베이비붐세대보다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더 많은 유형에서 자식교육보다는 자신에게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베이비붐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식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도 존재한다.

넷째,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베이비붐세대의 모든 유형에서는 노후준비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밀레니얼세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만을 필요로 하는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밀레니얼세대의 일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 겪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베이비붐세대의 모든 유형에서는

노후준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노후준비는 할 겨를이 없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밀레니얼세대의 5유형에서는 노후준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노후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세대는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노후준비 필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2절 유형별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노후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인식 유형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의 주관적 유형은 각 각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베이비붐세대의 유형별 논의

첫째, 제 1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통합적 준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유형이다. 기존 선행연구(권보경, 2015)에서는 도출되지 않은 유형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 통합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또한 통합적 준비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 또한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통합적 준비와 이에 따른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강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부, 2010), 2007년 실과(기술·가정)개정 교육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 교육을 중요사안으로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다(이종희·조병은, 2011).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을 전문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과 자격 요건 및 인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청년들도 미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생의 단계별로 장기적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 2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연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준비’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2018년 보험개발원에서 발간된 ‘2018 은퇴시장 리포트’의 결과를 지지한다. 결과에 따르면, 4050세대 10명 중 8명(79.2%)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노후준비 수단은 공적연금에 치중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공적연금은 곧 국민연금(90% 이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의존함에 따라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함께 뒤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는 국민연금 미납자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시급하지만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적정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사적 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연금개혁 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정책을 재정비하여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 3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창출’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권보경, 2015)에서도 도출된 유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유형을 ‘일자리 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고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정부는 소득 보전보다는 일자리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제 3유형은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의 보충적인 소득보장 뿐 아니라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노동부, 2004), 노인일자리 수를 2022년에는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하고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은나, 2017).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 사업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다수의 노인들이 보수가 적더라도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노년기에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행기관인 지자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만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용, 문화, 여가 등 다양한 기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 4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가족, 신, 정부, 사회 공동의 몫’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18 노후준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7.1%가 노후생활비를 준비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이 노후생활비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유형은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비로소 가족, 신, 정부, 사회 등 다른 곳에 의지를 하게 되며,

향후 노후 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시월·조향숙, 2013). 따라서 이 유형에게는 노후준비에 있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금융 및 재테크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기존의 노후준비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진단에 따라 상담, 연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 5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유지’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선행연구(권보경, 2015)와 일부 비슷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연구(권보경, 2015)에서는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하여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자원봉사 및 친구모임 등 사회활동을 자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대인관계 및 사회참여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5유형은 정서적 지지를 중요하게 여겨 가족, 친구와 더불어 이웃들과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유형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활동이 가능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과 사회적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며, 노인 자조 모임,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시켜 보다 많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지원 영역(한글교실, 역사 교실 등), 취미여가지원 영역(댄스교실, 원예교실, 노래교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서생활지원 영역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김계옥·김용민, 2016). 때문에 노인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적극 고려하여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밀레니얼세대의 유형별 논의

첫째, 제 1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막막한 통합적 준비’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정임, 2009)에서 도출된 ‘청년층은 노후준비 시기는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조사대상자의 2/3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노후준비가 아

직 와 닿지 않고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노후준비에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업 플랫폼 중 하나인 ‘사람인’에서 실시한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로는 32.9%가 사회초년생(첫 취직 이후 바로)으로 응답하였다(조용훈, 2018).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노후준비는 즉, 미래의 설계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하여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준비의 필수적인 부분(경제, 건강, 인간관계, 법률 상식 등)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핵심 교과목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학교 과정에 필수 교양으로 개설하여 청년들이 노후준비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 2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YOLO라이프 실천’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7)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17)에서는 71.8%가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 하려고 한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가 없다(75.8%).’라고 생각하였으며, ‘잘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살고 싶다(72.2%).’는 바람을 내비쳤다(이용진, 2017). 하지만 그에 반해 이러한 삶은 이상일 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노후준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즐기더라도 노후도 함께 준비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유형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와는 상반되는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의 20-30대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인식제고에 있어 기존의 기성세대의 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의견수렴 후 이를 협의 및 조율하여 정책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 3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준비’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스로 해야 함을 인식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보장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인터뷰에서 언급된 건강보험제도와 복지 혜택의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 세금 탈세 규제 강화, 비 급여 항목에 따른 과 부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추

진해야 할 것이며, 소득보장 및 노후준비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 4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무조건적인 자금마련’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선행연구(김정임, 2009)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40.0%가 노후준비를 할 돈이 없어서 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제 4유형 또한 현재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현실로 노후준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난으로 인해 노후에도 무조건 경제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노후준비 설계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 재무 설계, 재테크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노후준비에 있어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 적금’과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통장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의 자활을 돕고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안전한 미래와 편안한 보금자리 및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 5유형은 노후준비에 있어 ‘실천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는 취업 플랫폼 ‘사람인’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를 지지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1%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 같은 노후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67%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이직 혹은 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 93.4%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조용훈, 2018). 제 5유형은 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후준비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현재에만 집중해서 살자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타 유형에서 언급된 노후준비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설계(금융, 정서적, 건강관리 등)교육, 청년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 확대, 소득보장 및 노후정책 강구는 기본적으로 필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노후준비 설계를 위해서 공공 영역 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 기업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본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할 것이며, 노후설계 콘텐츠 개발 및 전 국민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마련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식유형을 살펴보는 연구로서 방법론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을 바탕으로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Q방법론은 연구의 참 가설을 생성하고 다양한 인식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방법론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고 특징을 분석하였으나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있어 차이점과 상호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양적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Q방법론에서는 유형을 나누고 유형 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이점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유형을 도출하고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석옥·하규수(2013). “중년층의 성공적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121-144.
-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강은나(2017).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1(0): 28-39.
- 고민석·김승희(2013). “성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건강관련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후 건강기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39(2): 63-75.
- 고은비·계선자(2018).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기 자녀에 대한 자원 제공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1): 23-37.
- 권보경(2015).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유형분석 :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2014). “나라의 세대별 노후준비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베이비부머와 이전 및 이후세대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0(64): 7-30.
- 김경호(2013).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여가 서비스 ; 타임스타일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22(0): 3-25.
- 김계옥·김용민(2016).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지지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6(4): 37-52.
- 김귀분·박민숙·석소현(2008). “중년의 노후 생활준비도 및 요양시설 인식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3): 480-494.
-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성령(2011). “베이비붐세대의 가족주의 가치관, 노후준비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은(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순은(1999). “Q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9(2): 201-216.
- 김순은(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 김승완·전지혜(2016). “중고령 장애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90(1): 131-162.
- 김시월·조향숙(2013).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비교분석”, 『한국FP학회』, 6(3): 1-33.
-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0): 55-82.
- 김연화·황종규(2017). “세대별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5(2): 189-204.
- 김영희(2015). “중·장년층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배우자 존재유무 및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하·임성은(2011). “베이비붐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김우성·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 세대, Y 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권 1호, 197-213.
- 김재호(2014).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보건복지 포럼. 통권 209호. 61-73
- 김재희·김욱(2013). “노인의 노후준비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2(0): 231-256.
- 김정미·엄기옥(2014).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특성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197-221.
- 김정임(2009). “20대 청년층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성·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 김지년(2015). “대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가정 환경적 요인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후인식수준을 매개변인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마경희(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전기베이비부머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20): 31-70.
- 김효신(2008). “노후준비와 우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3(4): 117-128.
- 김흥규(199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 언론정보연구소.
-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정(2010). “청·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9-54.
- 남기민·최화강(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1): 347-371.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문화 및 사회문제』, 10(2): 1-15.
- 남순현·김미혜(2014).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4(1): 183-203.
- 노원석(2011). “가족부양에 관한 한국노인과 자녀세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모델”, 『개신논집』, 10(0): 257-273.
- 노은영(2016). “베이비붐세대의 노후불안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연구 : Q방법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재홍(2017).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준비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재홍(2017).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준비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 12(1): 3-25.
- 박명아·조시울·신혜리·박설우·김영선(2017).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7(1): 29-49.
-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학』, 29(3): 651-683.

- 박재흥(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0(81): 10-34.
- 박정희(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승(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준비 현실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6(0): 63-72.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박창제(2013). “은퇴결정 형태와 노후준비가 은퇴 고령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59(0): 115-138.
- 박창제(2016). “베이비붐세대와 베이비붐 직전세대의 재무적 준비와 영향요인 비교”, 『노인복지연구』, 71(3): 305-333.
- 박현식(20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58(1): 281-302.
- 박효진(2015).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618-6626.
- 배계희(1989).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권 3호, 1007-1122.
- 배영미(2011). “국내아파트광고와 에코세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윤조·공순희(2014). “중년여성의 건강관련 노후준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10): 6250-6257.
- 백은영(2017). “베이비부머 가계 은퇴 진전에 재무행동 변화와 자산선택 행동 결정 요인”, 『사회보장연구』, 33(4): 133-161
- 상윤진·유정·박민정·이인성(2015). “클래식 패션이미지와 감성 어휘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3): 85-98.
- 서명희·김영희·김현옥(2017).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 718-727.
- 석상훈·권혁창·송현주·이은영·오지연·신혜리·김균희(2012).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국민연금연구원.

- 석재은·이기주(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전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2010(2): 25-74.
- 성혜영(2016).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노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16권 1호. 35-40.
- 손기복(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건강상태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진영·강영미(2014). “장애노인의 우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노후준비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3(0): 21-45.
- 신미진(2017). “건강한 중년 여성과 관절염을 가진 중년 여성의 성공적 노화 인식 비교 : Q방법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수민(2013). “과거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4(3): 57-83.
-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용환·이캐시연주(2018). “이중적 관점으로 본 밀레니얼세대의 소비와 거울을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 355-364.
-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서울거주 고학력여성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의수(2006). “베이비붐세대의 실버타운 입지 및 주거유형 선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홍실(2016). “한국 성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 및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 동방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여윤경·정순희·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 예지은·진현(2009). “신세대 직장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12(2): 67-86.
- 오수연(2017). “올로 라이프에 주목하라!”, 『마케팅』, 51(7): 52-57.
- 오정근(2017).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FIT 인식 분석 및 유형화 -Q방법론에 의한 한국

- 인과 외국인 관광객 비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1(6): 127-149.
- 오정민·이상호(2018). “한류문화축제 방문객, 그들은 K-pop 팬덤인가 축제방문객인가?-Q방법론에 의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방문객의 주관적 인식 비교-”, 『관광학연구』, 42(10): 31-51.
- 유병규·박덕배(201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현대 경제연구원』, 491(0): 12-20.
- 유용식(2013).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2): 738-747.
- 유인순·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천안 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245-262.
- 유인준(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사회·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인식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연(2016).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장애와 고용』, 26(1): 153-172.
- 유희정(2000). “노인들의 부양에 관한 규범의식이 자녀와의 결속, 갈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연구』, 9(1): 107-130.
- 윤은자·김현정·전미순·윤정아(2012). “연명치료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비교”, 『주관성 연구』, 0(25): 21-34.
- 이금룡(2018).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이후 정책적 한계”,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18(6): 205-219.
- 이남·한정란(2014).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3): 374-399.
- 이남·황정란(2017).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한국노년학』, 37(1): 151-171.
- 이동욱(2004). “여성들의 노후준비와 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 5(2): 139-161.
- 이상윤·안인숙(2018).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 355-364
- 이선미(2018). “Q방법론을 적용한 인공지능 비서에 대한 비서와 상사의 인식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

- 럼. 통권 147호. 72-80
- 이소정(2011).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74(0): 11-18.
- 이소정(2011).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 『보건·복지 Issue&Focus』, 98(0): 1-8.
- 이소정(2012).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204호. 32-40
- 이소정(2016).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239호. 70-82.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한정란(2008). “성공적인 제 3기 인생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이순희·김윤정(2014).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579-586.
- 이승신(2012).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자문화연구』, 15(4): 43-61.
- 이승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4(2): 73-95.
- 이영대·정명채(1988). “농가유형별 노후준비실태분석”, 『농촌경제』, 11(2): 67-78.
- 이용재(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 13(5): 253-261.
- 이유미·황의갑(2010). “연구논문-형사정책 특집 : 경찰의 공권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Q방법론을 적용한 경찰과 일반인의 인식분석”, 『한국범죄학』, 4(2): 83-116.
- 이윤경(2013).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4(0): 15-20.
- 이인수(2002).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종희·조병은(2011). “고등학생의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교육’을 위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의 교수 설계와 개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3): 161-183.
- 이현정(2015). “‘아나운서’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 시청자와 아나운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 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준비도. 대한가정학회. 34권 2호, 117-128.
-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호·권미자(2016). “시각장애인의 노후준비 영향요인”, 『시각장애연구』, 32(4): 93-115.
- 임희섭(2002).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서울 : 나남출판.
- 장수미(2011). “사회복지 실습지도교수와 현장수퍼바이저의 실습수퍼비전 내용에 대한 인식 비교”, 『사회복지연구』, 42(1): 371-397.
- 전귀연·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 전혜연·문정화·신은경(2014). “베이비부머 장애인의 노후준비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1(0): 63-93.
- 정경희(2011). “베이비붐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0): 5-10.
- 정규형·박서영(2014). “중년기의 가족부양부담이 개인의 노후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3(0): 115-147.
- 정순돌·김성원(2013).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 『노인복지학회』, 59(0): 237-256.
- 정순돌·박현주·오은정(2013).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희망 노후생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62(0): 289-316.
- 정애리(2007).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 남성 가구주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옥(2014).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 자녀관련 특성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진·김순미(2012).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적자본 투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31-152.
- 조대연·김은비·김경근·정홍인(2018).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 니트족의 유형화와 니트 탈출방안”, 『역량개발학습연구』, 13(2): 165-190.
-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양의식”.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 연구』, 43(0): 135-156.
- 조혜진(2012). “베이비부머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노후의료비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23-143.
- 주수정·신성희·이재훈·구창우·정새롬·한겨레(2017). “한국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사회공공연구원』.
- 진상현(2014). “원자력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4): 149-173.
- 채은희·박미숙(2019). “중년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화 교류연구』, 8(1): 203-225.
- 최순심(2014). “프랑스 한류 현상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유형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14(4): 295-327.
- 최영준(2015).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와 경제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근거 이론적 접근”, 『인만사회과학연구』, 16(3): 353-378.
- 최우혁(2014). “IKEA한국진출에 따른 한국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의 인식비교 연구 :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자·김민정A·이지영·김민정B(2012). “경제수명의 산정을 통한 한국 가계의 은퇴준비도 측정”, 『한국FP학회』, 5(4): 47-71.
- 최혜련(2012).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활동참여가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 통계청(2017). “사회조사 결과 발표 : 성인 1/3 노후준비 안 하고, 20대 소비만족도 가장 높아”, 『대한뉴스』, 0(235): 74-75.
- 한국행정연구원(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한귀례(2017). “중년기 노후준비유형분석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애(2014). “베이비부머세대 부모와 에코부머세대 자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비교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진·정순희(2013).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 『한국FP학회』, 6(2): 35-62.
- 허은진(2017). “노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GRI연구논총』, 19(2): 119-150.
- 홍영준·이정훈(2014). “노후준비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산적

- 활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4): 91-110.
- 황남희(2018). “국민 노후준비 실태와 향후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6): 182-204.
- 황인수(2001). “청년층의 노인부양 의식과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외국문헌

- Brown, S. R.(1980). “Political subjectivity :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Fromm, J. & Garton, C. (2015). “Marketing to Millennials”. Amacom. future, 1584 to 2069. New York, NY: William Morrow & Company.
- Havigurst, R. J. and Albercht, R.(1968). “Older People”, NY : Longmans, Green&Co.
- Hodges, L.(2005). “The Relationship of Migration and Retirement Preparation in a Cohort of Middle-Aged Adults”, Utah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Lancaster, L. C. and Stillman, D.(2010). “The M-Factor: How the millennial generation is rocking the workplace”. New York, NY: Harpercollins.
- Lancaster, L. C., & Stillman, D.(2010). “The M-Factor: How the millennial generation is rocking the workplace”, New York, NY: Harpercollins.
- Moore, J. F. and Mitchell, O. S.(1997). “Projected Retirement Wealth and Saving Adequacy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Cambridge, MA.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Rowe, J. W. and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NY : Pantheon Books.
- Strauss, W. and Howe, N.(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New York, NY : William Morrow & Company.

3. 인터넷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 국민연금공단(2018). “2018 노후준비실태조사”.
- 김희정(201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510031157753>.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1호 공급... “노후준비 대안”
- 노동부(200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004년도 시행지침.
- 보건복지부(2006). “새로마지플랜2010: 저출산·고령사회 제 1차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0). “새로마지플랜2015: 저출산·고령사회 제 2차 기본계획.
- 보험개발원(2019). “2018 은퇴시장 리포트”.
- 이용진(2017).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25678>. 당신은 '올로(YOLO)족'인가요?..올로 발목 잡는 노후준비·적은 소득.
- 조용훈(201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0570>. 직장인 51.3% “노후준비는 ‘꿈’”.
- 진주화(2016).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19503>. 밀레니얼세대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방식.
- 통계청(2010).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정분석.
-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5).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6). 한국의 사회동향.
- 통계청(2018). 2018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
- 통계청(2019).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1인당 GNI.
- 통계청(2019).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노년부양비.
- 한귀영(2018). <http://heri.kr/965041>. 연금을 둘러싼 세대전쟁.

[부록 2] 일반적 사항 및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름		연 락 처	
성 별		종 교	
나이(몇년생)		직 업	
가족사항		월 소득 *	
국민연금가입 여부(몇 년)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 * 학생의 경우, 월 소득을 아르바이트 및 용돈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월 소득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답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약 000원으로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최대한 자세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가장 반대하는 문항에 대한 이유	가장 찬성하는 문항에 대한 이유
노후준비에 대한 기타 추가의견	